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공간구성

Spatial Composition of Hyanggyo Architecture in Yeongdong Province of Gangwon-do



김 용 기 / 건축사,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건축학과 겸임교수/기린건축사사무소 대표
Kim, Yong-Ki / Registered Architect, Adjunct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RIN Architecture
kirinhy@hanmail.net

1. 서론

유교건축 중 향교는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왕조의 교화정책 가운데 근본적인 방법으로 지방민을 교육, 교화할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건립되었다.

본래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지만 그 존재가 미약하고 전국적인 규모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말 주자학의 전래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해 형성된 신흥사대부 계층의 관심과 승유억불정책을 이념으로 하는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향교의 보급을 위한 1읍1향교정책으로 향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으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국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불교의 이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유학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조선은 국초부터 유학 사상을 통치이념화 하여 향교건축의 확산에 힘을 기울였고, 조선 중기부터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사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관학보다는 사학인 서원위주로 학맥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배치유형과 평면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교건축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향교건축의 변천과정

향교건축은 문묘향사, 관리양성, 유학보급, 지역사회교화 등을 위한 조영목적 중 어떠한 기능을 위주로 하였느냐에 따라 공간구성상 변화를 갖게 되었다. 고려말, 조선초에는 지방에 설립되었던 교육기관이라 하여도 문묘공간이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들지 않았다. 따라서 문묘의 향사 기능

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조선조 후기의 향교는 초기와 비교하여 제례의 기능(문묘공간)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향교건축의 시대별 건립목적에 따른 공간구성의 변천과정은 고려시대에는 단일건물 내에 성현의 신위를 봉안한 문묘공간을 우측에 배치하고 강학공간을 좌측에 배치한 좌학우묘로 구성되었다. 즉 명륜당이나 동재, 서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성전 좌측의 건물을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14세기 말에는 제사(문묘공간)와 교육공간(강학공간)이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었으며 단일건물의 개념에서 한울타리안의 개념으로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이 분리된 것은 14세기말 이후 즉, 조선초 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에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사림들이 학계를 주도하면서 학맥을 바탕으로 봉당이 형성되고 지역성을 띠게 된 시기로서 이미 '1읍 1교'의 원칙아래 많은 향교건축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신설보다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소실된 향교건축이 중수, 이건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형식적이고 이념적인 유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현실적,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유학사상이 전개되고 봉건적 사상의 유풍이 퇴화하면서 제사와 강학공간의 격식적인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문묘공간이 강조된 단순한 공간구성으로 변한다.

3. 향교건축 배치 유형

향교건축의 배치유형은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으로 분류되고, 입지환경에 의해 고상저하 개념의 위계질서규범과 유학적 사상의 전상후하, 좌상우하 개념에 따라 전학후묘,

전묘후학, 좌학우묘, 좌묘우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문묘 공간과 강학공간이 앞뒤로 위치하는 경우와 옆으로 위치하는 경우이다. 앞뒤로 놓이는 경우는 '전학후묘'와 '전묘후학'이 있고, 옆으로 위치하는 경우는 '좌묘우학'과 '좌학우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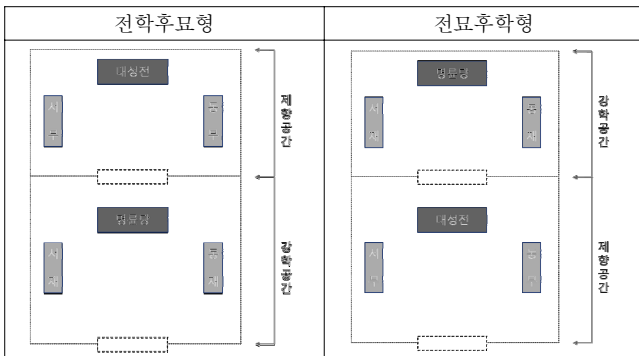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이 앞뒤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향교가 위치한 곳이 평지인가 또는 산을 배경으로 한 경사지인가에 따라 배치 형태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문묘공간인 대성전이 강학공간인 명륜당보다 우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3.1 전학후묘(前學後廟) 형

향교를 경사지에 세운 경우에는 명륜당이 앞에 위치하고 대성전이 뒤에 놓이는 '전학후묘'의 형태로 배치하여 위치상으로는 대성전을 우위에 놓이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향교가 '전학후묘'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학후묘'의 형태도 명륜당과 동서재가 놓이는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명륜당이 향교 정문을 등진 가운데 대성전 쪽으로 동서재를 배치하여 내삼문을 통하면 바로 대성전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전당후재'라 한다. 강릉향교 배치도를 보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명륜당이 대성전을 뒤로하고 동서재를 정문 쪽으로 배치하는 '전재후당'이라 한다.

표 1. 향교건축 배치형태



3.2 전묘후학(前廟後學) 형

향교가 평지에 세워지는 경우에는 대성전이 앞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뒤에 놓이는 '전묘후학'의 형태로 배치한다. 이 경우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대성전이 보이고 양쪽에 동무와 서무가 자리한다. 대성전 뒤로 내삼문을 지나면 정면에 명륜당이 있고 좌우에 동서재가 위치하게 된다.

3.3 좌묘우학(左廟右學) 형 및 좌학우묘(左學右廟) 형

'전묘후학'이나 '전학후묘'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특이한 경우가 몇몇 향교에 나타난다. 즉 대성전과 명륜당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교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양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 대성전은 왼쪽에 배치하고, 명륜당이 오른쪽에 있는 '좌학우묘'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성전이 오른쪽에 배치하고, 명륜당이 왼쪽에 위치하는 '좌묘우학'의 형태도 있다.

표 2. 향교건축 배치유형

향교건축 배치유형	향교건축 강학공간 배치유형
전학후묘(前學後廟)	전재후당(前齋後堂) 전당후재(前堂後齋)
전묘후학(前廟後學)	
좌학우묘(左學右廟)	
좌묘우학(左廟右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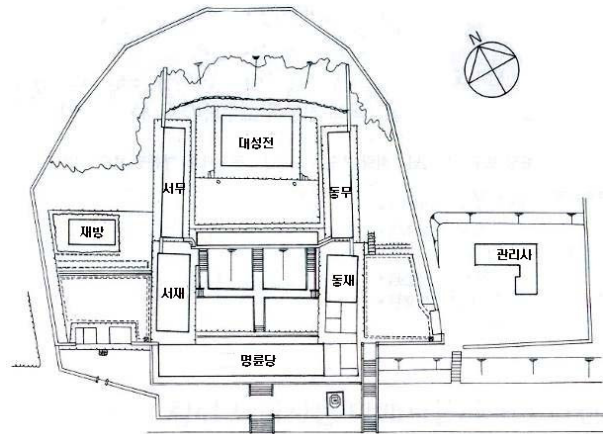


그림 1. 강릉향교의 배치도

4. 향교건축 강학공간 배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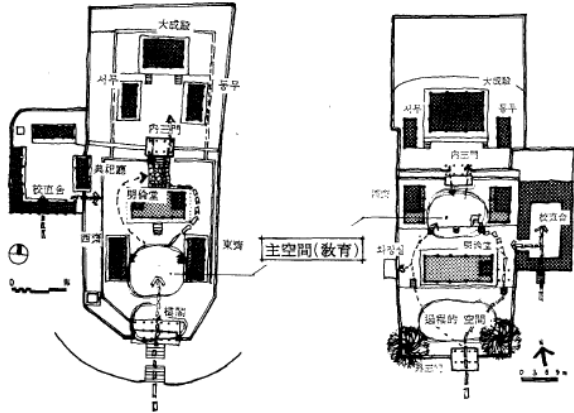
향교건축에는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이라는 두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강학공간의 배치유형은 명륜당과 동서재의 위치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4.1 전재후당(前齋後堂) 형

전재후당형 배치는 위상기하학적인 방향성에 의해 강학공간에서 내삼문과 문묘공간이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상징성이 약화된다. 성적(聖的)공간 이행은 단절되고, 결합과 집중의 약화를 초래하여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은 객관적으로 인식대상이 된다. 두 공간이 존재하여 이원적 공간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4.2 전당후재(前堂後齋) 형

전당후제형 배치는 내삼문이 강학공간에서 인식되어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상징성이 증가된다. 문묘공간은 신의 강림처소로서 숭배대상이 되고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은 비균질적이면서 내삼문에 의한 변증법적 합일과정으로 하나의 구심성을 지니는 이원적 공간이 된다.



전제후당형 전당후제형
그림 2. 향교건축의 강학공간 배치유형

5. 강릉 향교 연혁 및 배치 형식

5.1 강릉향교의 연혁

강릉은 조선시대 강릉대도호부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영동 지방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고려 시대 말기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소실되었다가 고려 충선왕5년(1313년)에 강원도안무사인 김승인(金承印)이 화부산(花淨山) 아래에 설립하였는데, 조선 태종11년(1411년)에 다시 소실되자 강릉대도판관(大都判官) 이맹상(李孟常)이 유지 68인과 발의하여 1413년에 중건하였다. 1909년에는 신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명륜당에 화산학교(花山學校)를 설립하고 향교재정으로 운영하다가 1910년에 폐교되었으며, 1919년에는 수선강습소(首善講習所)를 설립하였다. 1928년에 강릉공립농업학교를 설치하였고, 그 뒤 강릉공립상업학교·강릉공립여학교·옥천국민학교(玉川國民學校)·명륜중고등학교(明倫中等學校) 등이 명륜당에서 개교하였다. 1963년에 명륜당과 동재·서재를 보수하고 1967년에 담장을 신축하였으며, 1979년에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전적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현재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고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으며, 전교(典校) 1

명과 장의(掌議) 수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소장 전적은 6·25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 『공부자성적도(孔夫子聖蹟圖)』 등 70여 권이 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99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3. 강릉향교 대성전, 명륜당 전경

5.2 강릉향교의 배치 형식

강릉향교는 전체적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이 일축선형을 이루는 배치로서 향교건축 배치유형으로 보면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남서향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에 협문과 사면을 정리하여 조그마한 정원을 이루었고, 둘째 단의 좌측에는 외삼문과 제방, 우측담장 밖으로 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중앙 전면에는 명륜당을 배치하고, 후면에는 양측에 동재, 서재가 자리하고 있다. 셋째 단에는 내삼문을 겸비한 회랑공간을 배치하고, 그 뒤편 좌우에 동무, 서무를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그 중심부에 중첩하여 대성전을 일축선상에 배치하고 있다. 향교건축의 배치유형으로 보면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고, 강학공간의 배치유형은 명륜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동재, 서재가 그 후면에 위치하는 전당후제(前堂後齋)형식으로 분류된다.



그림 4. 강릉향교 대성전, 강학공간에서 본 회랑

표 3.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별 주요 건축물의 배치특성

향교명	현존 건물	지형	배치축	배치형식	강학 배치유형
강릉 향교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회랑), 명륜당, 동재, 서재, 재방, 외삼문, 협문	경사지(3단구성)	일축선형	전학후묘형	전당후재형
삼척 향교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장경실, 숙청재, 직청, 사주문, 교직사	경사지(3단구성)	일축선형	전학후묘형	전당후재형
양양 향교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수직고	경사지(2단구성)	일축선형	전학후묘형	전당후재형
간성 향교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경사지(3단구성)	일축선형	전학후묘형	전당후재형

표 4.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별 주요 건축물의 평면특성

향교명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동.서재	누각
	유형	규모 정면×측면	유형	규모	유형	규모	유형	유형	바닥형식	유형
강릉 향교	개방형	5칸×3칸	폐쇄형	5칸×1칸	방+마루형	11칸×2칸	뒤틀마루(무)	뒤틀마루(무)	마루형	명륜당형
삼척 향교	개방형	5칸×3칸	폐쇄형	3칸×1칸	방+마루형	7칸×1칸	뒤틀마루(무)	뒤틀마루(유)	온돌방형	명륜당형
양양 향교	개방형	3칸×3칸	개방형	3칸×2칸	마루형	7칸×2칸	뒤틀마루(유)	뒤틀마루(유)	온돌방형	무
간성 향교	개방형	5칸×3칸	개방형	3칸×2칸	마루형	4칸×2칸	뒤틀마루(무)	뒤틀마루(유)	온돌방형	명륜당형

6. 결론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건축은 고려시대에 시작하여 조선에 걸쳐 지방관학의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으로 설립되었다.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배치특성은 경사지 지형을 이용하여 3단구성으로 이루어지고 대성전과 명륜당이 일축선형을 이루는 배치축을 형성하였다. 향교건축의 배치형식으로 보면 명륜당이 앞에 위치하고 대성전이 뒤에 위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형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교건축의 강학공간의 배치 유형으로 보면, 전당후재(前堂後齋)형으로 내삼문이 강학공간으로 인식되고 문묘공간은 신의 강림처소로서 숭배되는 이원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는 전당후재(前堂後齋)형으로 누각형식의 명륜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동재와 서재가 그 후면에 위치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문묘공간의 대성전은 5칸×3칸(정면×측면)이 3개소로 일반적인 대성전 규모인 3칸×3칸(정면×측면)과 비교하여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강학공간의 명륜당은 대부분 누각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상층부에 벽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향교 강학공간의 동재, 서재는 모두 뒤틀마루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동재, 서재 실내 바닥이 온돌방형이 아닌

마루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영동지방 향교건축은 문묘공간과 함께 더 나은 강학공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이상적인 교육공간을 위한 입지 환경조건과 제반기능을 담당할 영역간의 배치형식, 기능적인 공간배분, 공간의 연속성과 위치관계, 건축규모와 의장까지 모두를 총합하여 문묘교육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향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한 건축적 지식자산은 향교건축의 새로운 건축교육문화 체험공간으로 재조명되기를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2011
2.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3. 박경립, 한국의 건축문화재, 강원편, 기문당, 1999
4. 이우종, 경상도의 초기 서원건축,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8권 5호, 2011
5. 이정국의 2인,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5호, 1990
6. 임상규, 채희재, 강원 영동지방 향교건축의 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지 제12권 4호, 2010